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전쟁이 나더라도 붙는다는 확신, 그리고 약간의 사명감’



김형철

- 1983년 8월 생
- 일산 정발고등학교 졸업
- 국민대학교 법대 재학 중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I. 시작하며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사법시험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바로 고시계의 합격수기를 정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합격기를 보며 각양각색의 공부 방법론을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음은 물론 인생의 종합예술이라 불리는 고시생활 속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합격기를 쓰게 되어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길지 않은 수험생활과 미친한 실력으로 합격하여 글을 쓴다는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노하우가 끝 물살을 타기 시작한 사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가감없이 글을 써 봅니다.

### II. 내가 사법시험을 선택한 이유

고등학생 때까지 저의 꿈은 공과대학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기술 습득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MBA과정을 수료 후 귀국하여 유수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실무를 익히고 벤처기업을 창립하여 덩치를 키운 뒤 대우 등 부실회사를 인수하여 대기업을 만들어 재계의 거목으로 거듭난 뒤 어려운 이들을 위한 형철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대한 꿈은 수능을 망침으로써 일단락되었고, 수능을 망친 마당에 저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가 사라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하는 법이라는 것이 매우 생소하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터에 케이블TV에서 우연히 ‘넘버3’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인 최 민식이 검사역을 맡아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면서 자기 나름의 ‘정의’에 대해 말하고 이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검사란 직업과 그 사명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아래 반드시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하나가 일단 사법고시를 준비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저의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III.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 바로 ‘사법고시’

대학교 1, 2학년까지는 인생에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 12월 어느 날, 아버지가 군대를 먼저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기에, “아버지, 제가 그래도 법학도인데 군법무관으로 가야 체면이 서질 않겠습니까? 딱 1년만 고시 생활을 해보고 안되면 바로 입대하겠습니다!” 라고 굳은 다짐으로 간곡히 아버지를 설득한 후 사법고시에 응시하려면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법학과목 35학점은 이미 이수하였고, 문제는 토익이었는데, 토익이 안되면 군대에 끌려간다는 압박감에 토익공부를 하루 10시간씩 고시공부처럼 해서 보름 만에 700점을 넘기고, 2004년 3월 학교는 휴학하고, 밀도 끝도 없이 무작정 신림동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초기부터 일찌감치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

면서도 학교수업만 충실하면 되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과 술만 먹으러 다녔지 정작 고시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신림동 학원들의 커리큘럼이 어떠한지, 특히나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이 무작정 신림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선배들에게 전화를 하고 도움을 구해 결국, <민법-이원영, 형법-신호진, 헌법-황남기> 기본강의를 등록하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공부는 복습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복습은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정작 헌법이 끝날 무렵, 민법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이 당시 나름의 시행착오라고 느낀 점은 교수 기본서는 필기 부담이 커서 서점에서 작년도 서브노트를 구입하여 그 곳에 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교수 기본서는 단권화가 필요하므로 강사 교재에 비해 책정리할 시간과 노력이 배가되며, 특히 필기를 별도로 노트에 하게 되면, 복습할 때 이 책, 저 책을 난잡하게 보게 되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점이 저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서점에 가서 민법 교재 중 가장 얇은 책, 한권으로 끝나는 책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정 변호사의 민법 조문·판례집이었습니다. 기본 이론은 민법 조문을 중심으로 간명하게 기술하였고 나아가 중요판례를 컴팩트하게 수록하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새로이 책정리를 위해 여름방학 무렵 유정 변호

사의 민법 집중강의를 듣고 민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는 실 강의록 신청하여 복습이 밀린 부분을 커버하기로 하고 정말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반평생 몸에 배었는데 모의고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머리에 남기는 것은 복습이라는 생각에 복습 : 연습의 비중은 7 : 3으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중간 중간 모의고사 1등도 해보는 등 성적이 그런대로 나와서 기대이상의 선방을 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이 되어 진도가 끝나고 난 뒤, '관례강의 따위 필요 없다, 그 시간에 혼자 책을 보면 3회독은 더 하겠다'는 오만방자만 생각에 홀로 방에 갇혀서 수행하듯이 코피 쏟기 전에는 안 나가겠다는 신념으로 책을 보았습니다. 이 때만해도 교재들이 지금처럼 두껍지 않아 시험 직전까지 과목당 7~8회독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월을 맞이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 없어 우황청심환(물약)을 들이키고 시험장에 들어가 미친 듯이 풀 어냈습니다. 이 때만해도 5지선다형 이었고, 요즘 사법고시 1차 시험에 비하면 지문도 짧은 편이라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시험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틀간 기절하고 난 뒤 체점을 하는데 기본 삼법 84점이라는 놀랄만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예상커트라인이 올라오는데 85점, 86점...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커트라인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결국 2차 예비순환은 고사하고 날마다 군대에 끌려가는 꿈을 꾸다가 결국 합격자 발표 날 PC방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합격자 명단 스크롤을 무한반복하다 낮이 나간 채로 한강에서 하염없이 평평 울었습니다.

기대이상으로 나름 고득점이 터져준 것인데 1년 뒤에 이 보다 더 잘 볼 자신이 없어, 주위의 만류를 뒤로하고 2005년 8월 1일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 IV. 군대와 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질체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계절마다 보약을 챙겨먹고 건강보조식품을 꾸준히 복용하는 통에 몸무게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20kg이상 불어 95kg이라는 거구의 몸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생활을 하면서 불어난 몸과 떨어진 시험 그리고 1년여 동안 단절된 생활을 한 덕에 지인들과의 연락마저 끊어진 상황 속에서 군대에 끌려가는 심정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다소 어중간한 나이에 입대를 하게 되어 이등병 시절에는 한두살 어린 선임병들과 마찰을 겪으며, 스스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소위 말하는 '개념'을 탑재해가며 모든 걸 잊고 군인 김형철로 살아가며 배워갔습니다.

저에게 군생활은 운 좋게도 헬스 트레이너였던 선임을 만나 30kg을 감량하며 몸짱으로 거듭나고, 수사헌병이라는 보직을 받게되어 헌병수사관이신 강원철

반장님 밑에서 제가 제일 좋아라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실무상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07년 8월, 군 제대 시점에 로스쿨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법고시를 다시 보기에는 겁이 나서 로스쿨 진학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정보를 입수하여 세심하게 검토해보았으나, 당시 저의 판단으로는 로스쿨 보다는 당연 사법고시뿐이라는 생각에 부모님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다시 신입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존경하는 강현중 교수님(국민대학교 민사소송법 전공)이 “넌 그냥 고시해라.”고 하신 말씀이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 V. 돌아온 탕아

2008년 3월 다시 신입동을 생활을 시작할 때 군입대전과 차이가 있다면 적어도 1차 공부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신입동 커리가 어떻게 흘러가며, 학원 및 서점은 디에 있고 동선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 직후 ‘군인파워’가 넘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체력이 좋아진 것도 있었지만 공부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습니다. 날마다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홀로 독서실에 와서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는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구철 교수님(국민대학교 행정법전공)이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마다 “나는 법학 책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연예신문 같은 것을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진다.”고 하셨는데, 점차 교

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심란하다가도 책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남들과 달리 군 생활을 추억하며 정말 길지 않은 제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 중에 하나도 손꼽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보면서도 군대에서와 같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다시 신입동을 찾은 저는 소위 말하는 ‘대세론자’에 편입되어 <민법-권순한, 형법-이인규, 헌법-금동흠(정희철 저, 이른바 금희철 강의)> 종합반을 등록하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판례강의까지 반드시 듣는다는 각오로 강의를 보다 철저히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판례강의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강의(1순환) - 진도별모의고사강의(2순환) - 판례강의(3순환)>까지 순환강의가 이루어져야 민법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반복되는 강의를 통해 리마인드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으므로 12월 진도가 끝나고, 이듬해 2월 시험 전까지 판례강의에 의한 리마인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1차 공부할 때는 주위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홀로 무작정 신입동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밥 먹는 시간도 점심, 저녁 각각 5분 이상 걸리지 않아 공부시간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입대 전 실패의 요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큰 적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학원,

독서실에서 눈에 띄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먼저 가서 말을 걸어 친구를 만들었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지금은 그 친구들이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적은 ‘불안감’이었는데,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떨어지면 뉴욕에 가서 참치잡이 어선이나 타러가야겠다!’ 등등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공부에 전념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임박해서는 ‘난 반드시 붙는다. 전쟁이 나도 붙는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결국 이듬해 2009년 제 51회 사법고시 1차 시험에서는 넉넉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감히 대한민국 사법시험 1차 시험은 전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 8지선다형 문제가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은 선발인원도 대폭 감축되어 경쟁률도 올라가 난이도 면에서나 응시생들 수준면에서 당연 세계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객관식은 그래도 객관식이다.’입니다. 요즘은 각 과목당 읽어내야 할 분량이 기본서, 판례집, 문제집, 진도별 모강 문제 등등을 합치면 6천 페이지를 육박하는데 옛날처럼 시험 한 달 전부터 과목당 3회독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차는 1차답게 2차는 2차답게’ 공부하자는 것이 저의 모토

였는데, 객관식은 시험지에 이미 답을 내주므로, 기본서를 중심으로 읽되 판례 비중을 높여서 빠르게 빠르게 회독수를 올리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소위 ‘눈에 바른다.’고 표현하는데, 객관식 문제의 대부분이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 하여 틀린 문항을 찾는 것이라면 기본서, 판례집 등 교재를 통해 옳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놓고(판례 등 문장이 긴 지문은 적절한 호흡에 원만히 읽힐 수 있도록 끊어 읽기 위한 줄긋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다가 어색한 지문을 고르는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그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그 촉박한 시간에 꼼꼼히 지문을 읽으며 ‘아, 이 부분을 이렇게 틀리게 만들었구나.’라며 답을 찾는 것은 저 같이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여 시험장 안에서는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찍지는 못해도, ‘이 지문 뭔가 어색한대?’ 하고 고르면 대부분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풀이 법을 통해 시간도 단축하여 1교시 때는 20여분이 남았고, 과목당 10분 이상의 시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부 방법은 어디까지나 개인성향에 따라 맞춰야 하는 것이므로 제 방법은 하나의 노하우 정도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VI. 무미건조한 1차 합격, 환상하는 2차의 세계

1차 합격은 이미 예견하고 있던 것이기에 크게 감흥도 없었고, 오히려 막연한 2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께 여쭙보고, 연수원에 있는 선배들과도 자주 통화하며 상담하고, 학원 강사에게도 귀찮도록 질문을 쏟아내며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합격하는 법'을 터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합격하는 법은 도저히 모르겠다. 하지만 불합격하는 법은 알 수 있겠다. 그럼 불합격하는 법을 피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 적어도 불합격에 이르는 길을 피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때 예비순환은 <민소법-이종훈, 상법-김혁봉, 행정법-성봉근, 형소법-김정철, 형법-이인규, 민법-박승수, 헌법-차강진>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예비순환 첫 과목인 이종훈 강사는 민소법 지식은 물론 2차 시험 답안작성요령 및 공부방법 등등 기본적인 것들까지 친형처럼 알려주셔서 이듬해 합격을 위한 탄탄한 기초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 6월, 제51회 사법고시 2차 시험(초시)을 치기 위해 학원에서 예비순환을 듣고, 마무리 강의를 챙겨듣는 등 시험 전에 발악을 해보았으나, 백지상태로 무작정 시험장에 들어가 소설을 쓴다는 심정으로 답안지를 짹짹 채우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쟁점이 도저히 모르겠다 싶은 것은 사법고시가 아니라 신춘문예를 한다는 심정으로 창작의 고통을 느끼며 학설과 판례를 지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 점수공개가 되자 당연 형편없는 점수였지만 그래도 희망을 보았던 것이 (1)기본적으로 정의점

수가 있구나. (2)학원에서 모범답안으로 주는 목차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3)글씨를 못쓰는 것이 크게 흠이 되지는 않는다. 등등의 제 나름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법 공부는 기본이고, 공부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던 것이 (1)시험 날 직전에 볼 정도로 분량을 줄여야 한다. (2)글씨를 개선해야 한다. (3)학원목차와는 다르게 나름의 목차를 잡아야 한다. 이 3가지를 항상 신경 썼습니다. 분량조절은 기본서가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워드작업을 하여 저만의 압축수험서를 만들고, 글씨는 주위에 빠르고 잘 쓰는 사람들에게 틈틈이 지도를 받았으며, 목차는 학교 교수님께 여쭙보고 교수님이 선호하시는 통목차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순환 때는 아무 것도 몰라 2차 종합반을 신청하여 강의를 들었으나, 초시를 치르고 나서 1차 때보다도 강사와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인터넷을 통해 모든 강사의 샘플강의를 들으며 저와 가장 잘 맞는 강사를 찾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1순환때 부터 선택한 강의는 <민소법-이창한, 상법-김혁봉, 행정법-류준세, 형소법-신이철, 형법-이인규, 민법-윤동환, 헌법-김유향>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강사마다 특색이 있고 장단이 있기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부득이 민사소송법 강의를 변경한 것은 이창한 강사의 교재를 기본서로 선택하여 정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고 이후에도 특강 등을 통해 이종훈 강사의 강의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민사소송

법 같은 경우는 두 강좌를 통해 보다 쉽게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혁봉 강사의 강의는 1순환 때 어음수표법 및 보험법 강의를 집중되므로 이 때 강의를 놓치면 순환이 넘어갈수록 어수 및 보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므로 1순환 때 끝낸다는 각오로 복습에 주력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윤동환 강사의 강의는 매 수업시간 전에 문제의 소재를 써보는 쪽지시험이 있었는데 이는 비단 민법 뿐만 아니라 7법 전과목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도 늘 강조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되는 사안인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쓸 것인지 문제의 소재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본논점에 들어가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따로 써야 한다는 점이었는데 1순환 민법강의 때부터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문제의 소재를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넘어간 예비순환, 앞으로 긴 시간이 남았다고 여유부리다 지나가버린 1순환을 뒤로하고 2순환이 다가오자 서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순환까지 달려오며 어렵פות이 후사법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들어오려고 하지만 무언가 두리몽실 하기만 하고 머리에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답안을 쓰려 해도 암기가 부족하여 답안이 좀처럼 생각 했던대로 나오지 않아 속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선배들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

하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 때 들었던 말중에 지금도 힘이 되는 말이 “니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자체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야.”라는 말인데, 혹시라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건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2순환 때에는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본서를 볼 것이냐, 사례집을 볼 것이냐를 고민하며 과목당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단권화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항상 분량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양이 적은 쪽으로, 암기가 수월하게 컴팩트하게 정리되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민소법은 이창한 사례집으로 단권화를 하였고(기본서는 통합민소법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사례집은 딱 답안에 옮길 분량으로 컴팩트하게 정리되어 암기에 훨씬 수월하였습니다), 상법은 상법총칙과 회사법까지는 김혁봉 상법신강으로 보고 어수와 보험은 스스로 요약집을 만들어 양을 줄였으며, 행정법은 류준세 행정법 위크북으로, 형소법은 신이철의 강의자료, 형법은 이인규 논점형법 강의, 민법은 윤동환 사례집을 주교재로 하고 교안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문제는 헌법이었는데 정희철 헌법연습이 사례집과 단문집이 분리되어 있어 회독수를 올리는데 여간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법은 김유향 모의고사와 비매품인 헌법 핵심암기 300제를 달달 외우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2순환 때 주교재 선택 및 단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노동혁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2순환을 한참 달리다가 2010년 달력이 넘어가자 마음은 더욱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졌지만, 다행인 것이 3순환에 들어가며 학원진도에 치여서 하루에 2시간도 못자고 진도를 따라가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 여유가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3순환 때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고 답안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2순환과 비교하여 그닥 크게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3순환이 끝나고 시험까지 2달여 시간이 남았는데, 막상 혼자 책을 보려니 집중도 잘 안되고 과목이 넘어갈 때마다 다른 과목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하루는 눈물 젖은 빵을 다음 날은 눈물 젖은 김밥을 먹으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책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결국 4순환, 5순환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감을 상실케 할 것으로 판단하여 마무리 강의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막연히 학원 커리에 쫓아가기로 한 것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판단이 저에게는 매우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쪽집게 강의를 통해 양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기본서를 읽을 때 강약을 주어 힘주어 읽을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강의도 끝나고 한 달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껏 분량을 극소화시킨 기본서들을 바라보며 뿌듯하기 보다는 '아직도 볼 양이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시험 전날에 두 과목씩 볼 것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기출 분석표를 구입하여 기출분석을 꼼꼼히 했습니다. 이 기간에 기출분석을 했다고 하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에게는 이 또한 매우 주요했습니다. 시험을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 말 그대로 이제 정말 과목당 마지막으로 정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미건조하게 강약없이 교과서를 훑어 내리면 기대했던 것보다 머리에 남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출 분석을 통해 올해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최근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어떤 논점들은 안 나오겠다는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량을 줄이고 또 줄이고 하여 비로소 시험 전날 두 과목을 돌릴 수 있도록 저만의 무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험쩍이며 지내오다 6월 23일 제52회 사법고시 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고3때 수능을 망친 이후 제가 항상 빼먹지 않는 것이 큰 시험에서는 반드시 우황청심환(물약)을 복용하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긴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시험 3일째까지도 청심환을 먹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랄까봐 정말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써내려갔습니다. 초안을 잡을 시간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시험 중간 중간 울컥울컥 하길 수만번 했지만 그래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고 수백만번 마음을 다잡고 손이 풀려 흐느적거릴 때까지 답안을 썼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경우 쓸 말이 많아 의욕이



앞서 그만 분량조절에 실패하여 2-2문의 경우 반 페이지를 한 줄에 두 줄씩 쓰는 누를 범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4일간 지옥 아닌 지옥을 경험하고 초연한 자세로 4개월여 기간을 기다린 끝에 정말 운 좋게도 합격이라는 감사드릴 결과가 나왔습니다.

## VII. 마치며

이상, 졸렬한 글솜씨로 미천한 합격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감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의 꿈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부단히 노력한다면 세상에 안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법고시의 경우 장차 이 나라의 법조인이 되어 항상 국민에 봉사하고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약간의 사명감과 더불어 막연하고 불안한 수험생활 동안 전쟁이 나도 붙는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신다면 반드시 합격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아름다운 밤이잖아요! ^^)

끝으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기꺼이 저에게 인생을 걸어 주신 아버지(김길선, 해병 367기), 언제나 제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인도해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어머니(최승희),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할아버지, 늘 손주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할머니, 누구보다 손주를 자랑스러워 해주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조카사랑이 넘치시는 작은아빠, 작은엄마, 그리고 미국에서 응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이모. 그리고 힘들 때마다의 따뜻한 충고와 늘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는 강구철 교수님.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시는 채승우 교수님(국민대학교 민법전공), 이동기 교수님(국민대학교 민법전공), 그 밖에 저를 알고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뒤늦게 합격을 영광을 바칩니다. 사랑합니다.